

# 근대계몽기 한자어 연구 -1음절 한자어 동사에 대하여

백해과  
(연세대학교)

## 1. 서론

국어사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를 개화기 또는 근대계몽기라고 부른다. 근대 계몽기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어 문체의 정착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현대 한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시기(한영균: 2008)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 한국어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부른다.

민현식(1994)에서는 근대계몽기의 한국어 문체 변천의 과도기를 크게 [1] 문체 실험기(1876~1894), [2] 문체 경쟁기(1894~1904), [3] 국한문체 정착기(1904~1910)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국한문체 정착기”에 발간한 『대한매일신보』의 주장하는 글(논설)과 전달하는 글(잡보)이다.

근대계몽기 문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텍스트의 형식면에서 표기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데 김홍수(2004)에서는 국한문 혼용체(현토식 또는 한문투 국한문 혼용체), 국한자 혼용체(國主漢從의 방식), 순국문체(한글체), 구결문식 한문체로 나누었고 홍종선(1996)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누고, 다시 각각 국한문체와 한글체로 나누고 문어체의 국한문체는 다시 한문구 국한문체, 한문어 국한문체, 우리말 국한문체로 분류하였다. 이상 분류법을 종합하면 근대 계몽기 표기유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기	어휘적 특성
한글	순한글	순국문체
	국한자혼용	한문식 국한혼용문체
한자		한문구식 국한혼용문체
		한자어식 국한혼용문체
	순한자	한문체

<표1> 표기유형에 따른 문체의 분류

본고에서는 순한글과 국한혼용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순한글의 논설과 잡보, 국한혼용의 논설과 잡보의 네 가지 문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1음절 한자어<sup>1)</sup> 동사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런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문법적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영균(2008)에 의하면 1음절 한자어 동사<sup>2)</sup>의 사용 양상이 문체의 현대성을 판단하는 준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어휘적 요소의 사용양상을 바탕으로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한영균(2008)에서의 1음절 한자어 동사가 종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제2장에서는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분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말뭉치 구성과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분포

본고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과 잡보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김영민(2007)에 의하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 창간되어 1910년 8월 28일까지 발행된 신문으로 창간 당시 영문판 4면과 국문판 2면이 6면 체제로 출범하다가 1905년 8월 11일부터 국문판이 사라지고 분리된 국한문판이 발간되어 영문판과 국한문판으로 분리되어 간행하기 시작하다가 1907년 5월 말부터 국문판이 다시 추가로 발행되어 그때로부터 영문판, 국한문판, 국문판 세 가지 형태로 발간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1907년 5월 이후로 이 세 가지 형태의 신문을 모두 합하여 만부 이상을 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대한매일신보』는 “일반 국민과 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컸음을 나타낸다.”(김영민: 2007)

### 2.1 말뭉치의 구성과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1907년 7월부터 1910년 7월까지 매달 1일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논설(제1면)과 잡보(제2면)의 텍스트를 수집하여<sup>3)</sup> 38일간의 약 7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순한글 텍스트에서 한자어 동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한자어 동사들을 한자로 변환하고 한자어 동사는 “HJ” 태그를 부착하였고 고유어 동사는 “JG” 태그를 부착하여 주석 말뭉치를 만들었다. 그 주석말뭉치의 보기를 보이면 아래 <보기1>과 같다.

<보기1>: 동사 주석의 예

<19070705대한매일신보\_잡보>

[박씨 폐현] 금릉위 박영효 씨가 직작일에 한성 병원으로부터 곳 詣闕하/HJ(예꺄꺄야) 陞現하/HJ(꺄꺄현꺄꺄다더라)

[아직 직가 아니되다] 군부에서 주분을 바치/HG(꺄꺄꺄꺄) 아직 직가가 아니 되/HG(꺄꺄꺄꺄)

1) “1음절 한자어 + 하-”형 동사가 정확한 용어이나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이를 위하여 1음절 한자어 동사라고 하기로 한다.

2) 한영균(2008)에서의 “單音節 漢字 + 하(ᄃᆞᆫ)”형 용언

3) 국한혼용의 잡보는 1910년의 자료의 텍스트 상태가 좋지 않아 연구에 도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앞 년도에 발행한 신문에서 보충하였다.

라)

.....

<19070705대한매일신보\_논설>

만국평화회의에 한국테의 작일 루터 던보를 據하/HJ(거흔즉) 히아평화회의에서 일본 사툼의 학딕를 呼訴하/HJ(호쇼흔) 한국 테의를 排斥하/HJ(빅척헝였다) 헝니 이 던보를 보논/HG(보논) 한국 사툼들이 의혹덤도 잇슬 것이오 실망덤도 잇슬 터이니 우리가 그 리유를 싱각헝며/HG(싱각헝며) 그 뜻을 解釋하/HJ(히석헝야) 첨근즈의게 說明하/HJ(설명헝노라) 대더 .....

국한혼용 텍스트는 원문이 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형만 찾아 주석 처리하였다. 간혹 한자를 한글로 음을 표기한 것들은 순한글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변환하였다. 또한 국한혼용 텍스트에서는 문맥으로 보아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임에도 “하-”, “이-”, “되-”가 붙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동사로 한문구로 보아 주석하지 않았다. 기타 주석과정에서 기준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으로 조사, 어미를 기준으로 한 어절로 한다.
2. 한문구에 지정사 “이다”가 붙은 것은 한 어절로 하였다. 예: 欲避不能이로다
3. 한문구에 “하-”가 붙은 경우에 “하-”바로 앞 어간이 동사가 아닐 경우에는 한 단어로 하였다. 예: 集於一席헝야.
4. 한자어 대명사는 띄어 쓴다.

## 2.2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분포

『대한매일신보』의 순한글판과 국한문혼용판의 논설과 잡보에서의 동사의 출현 빈도와 1음절 한자어의 빈도와 점유율을 보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전체 어절수	전체 동사 빈도		1음절 한자어	
논설(순)	16,309	3,890	23.85%	285	1.75%/7.33%
논설(혼)	11,373	2,844	25.01%	931	8.19%/32.74%
잡보(순)	21,436	5,427	25.32%	379	1.77%/6.98%
잡보(혼)	21,607	4,502	20.84%	627	2.90%/13.93%

<표2> 말뭉치에서 동사의 사용빈도<sup>4)</sup>

위 표에서와 같이 순한글의 논설과 잡보,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동사의 점유율은 각각 23.85%, 25.32%, 25.01%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에 국한혼용의 잡보에서는 20.84%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문구에 지정사 “이-”가 붙은 형태로 된 것이 다른 장르에서보다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sup>5)</sup>

4) 순한글 텍스트와 달리 국한문 텍스트에서는 문맥으로 보아 동사임에 틀림없지만 원본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동사가 논설과 잡보에서 각각 71개 씩 포함하고 있다.

또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빈도나 점유율을 볼 때 순한글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비록 아래의 <보기2>와 같이 순한글 신문의 잡보는 국한혼용 신문의 잡보에서 한자를 음만 변환하여 발간한 것으로 보이나 동사의 빈도나 점유율에서 보아 순한글로 글쓰기를 하면서 잡보에서도 한국어에 맞지 않은 한자어는 고유어 동사로 바꾸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기2> 1907년 7월 5일 잡보

<국한혼용>

▶ 日將陞見

日本 軍艦이 인港에 到泊~~호~~았는디 再昨日 下午 四時에 該艦海軍 中將 以下 司令官 艦長 等 九 人이 伊藤統監을 帶同~~호~~고 詣闕 陞見~~호~~았다더라

<순한글>

▶ 일본중장폐현

일본 군함이 인천항에 도박~~호~~였는대 작일 하오 시에 군 중장 이하 사관 함장 등 구인을 이등통감이 디동~~호~~고 폐현~~호~~았다더라

이로부터 한영균(2008)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든다는” 논의는 같은 시기 표기체가 순한글체이가 국한혼용체인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동사의 점유율이 비슷한(비록 국한혼용의 잡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정도를 보이지만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점유율에서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8.19%, 잡보에서 2.90%로 순한글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종류 수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의 표 3과 같다.

	전체 동사 종류 총수	1음절 한자어 동사 종류 수	점유율
논설(순)	619	56	9.05%
논설(혼)	1,547	380	24.56%
잡보(순)	944	54	5.40%
잡보(혼)	2,123	128	6.03%

<표3>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종류 수

5) 표2에서 순한글의 논설과 잡보에서 전체 동사 수는 고유어와 한자어 동사를 모두 합한 수로서 만일 한자어 동사만 고려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논설이 잡보보다 약 7.6%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잡보에서 한자어 사용빈도가 오히려 논설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고유어	전체 점유율	한자어	전체 점유율	1음절 한자어 동사	점유율
논설	2461	15.09%	1,429	8.76%	285	19.94%
잡보	2354	10.97%	3,073	14.32%	379	12.33%

<표> 순한글 텍스트에서 동사의 빈도

반면 국한혼용의 텍스트에서는 “하-”, “되-” 외에 “말-”, “삼-”가 쓰이고 “말하-”, “지내-” 등은 한번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위 표3에서와 같이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종류 수도 전체 동사 종류수의 24.5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국한혼용의 잡보에서는 6.03%로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논설과 잡보의 장르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논설은 자기의 주장을 기술하는 글로서 새로 창작되는 글이지만 잡보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기사를 한국어 식으로 번역한 글로서 국한혼용의 잡보에서는 한문구에 조사, 어미를 붙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국한혼용의 잡보에서 4음절 이상의 한자어 동사<sup>6)</sup>의 빈도가 583 번으로(608개 종류의 동사) 약 12.95%로 논설에서의 181 번(175개 종류의 동사), 6.36%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사용빈도와 점유율은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 텍스트의 문체적 차이를 보여주는 준거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1음절 한자어의 문법적 기능

우선, 각 장르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보기3> 장르별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목록(빈도순)<sup>7)</sup>

##### <대한매일신보\_논설\_순한글><sup>8)</sup>

\*爲하(51), \*對하(25), \*當하(22), \*因하(18), \*行하(16), \*亡하(14), \*變하(12), \*免하(11), \*定하(11), \*減하(7), \*取하(7), \*擇하(6), \*發하(5), \*傳하(5), 過하(4), \*求하(4), \*達하(4), \*興하(4), \*告하(3), 盛하(3), \*減하(2), \*兼하(2), \*救하(2), \*怒하(2), \*動하(2), \*留하(2), \*臨하(2), \*傷하(2), \*屬하(2), \*衰하(2), \*請하(2), \*稱하(2), \*敗하(2), \*向하(2), \*據하(1), \*隔하(1), \*屈하(1), \*勸하(1), \*禁하(1), \*連하(1), \*論하(1), \*反하(1), 分하(1), \*比하하(1), \*辱하(1), \*願하하(1), \*應하(1), 寵하(1), \*醉하(1), \*貪하(1), \*通하(1), \*表하(1), \*避하(1), \*合하(1), 害하(1)

##### <대한매일신보\_잡보\_순한글>

\*爲하(70), \*對하(68), \*因하(32), \*請하(24), \*當하(21), \*定하(15), \*居하(13), \*關하(9), \*合하(9), \*稱하(8), \*行하(8), \*處하(7), \*傷하(6), \*免하(5), \*向하(5), 開하(4), \*據하(4), \*擇하(4), \*破하(4), \*廢하(4), \*留하(3), \*發하(3), \*醉하(3), \*表하(3), \*加하(2), \*減하(2), \*兼하(2), \*求하(2), \*勸하(2), \*達하(2), \*變하(2), \*封하(2), 分하(2), \*屬하(2), \*願하하(2), \*依하(2), \*占하(2), \*除하(2), \*敗하(2), \*畢하(2), \*限하(2), 建하(1), \*告하(1), \*連하(1), 報하(1), \*比하하(1), 設하(1), 侍하(1), \*任하(1), \*傳하(1), \*通하(1), 退하(1), 稟하(1), \*避하(1)

##### <대한매일신보\_논설\_국한혼용>

作하(29), 得하(23), 知하(23), \*爲하(21), 云하(20), 觀하(19), 在하(17), 恥하(16), 出하(15), \*舉하(10), \*對하(10), 成하(10), 至하(10), \*因하(9), 可하(8), \*求하(8), \*行하(8), \*望하(7), \*說하(7), 受하(7), 被하(7), 見하(6), 哭하(6), 歸하(6), 務하(6), \*發하(6), 愛하(6), 與하(6),

6) 여기에는 4자 성어와 같이 4음절 한자어도 있지만 한문구의 형식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7) 동사 앞에 붙인 “\*”는 현대한국어에서도 사용하는 동사들로서 서상규(1998)의 “현대한국어의 어휘빈도”에 그 판별기준을 두었다.

8) 순한글 문체에서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자로 변환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謂하(6), 隱하(6), 立하(6), 致하(6), \*據하(5), 讀하(5), 名하(5), 聞하(5), 思하(5), 生하(5), 認하(5), 指하(5), 抱하(5), \*加하(4), 歌하(4), 開하(4), 決하(4), 過하(4), 教하(4), 及하(4), 能하(4), \*達하(4), \*帶하(4), 視하(4), 信하(4), 映하(4), \*要하(4), 以하(4), 入하(4), 從하(4), 進하(4), \*稱하(4), 棄하(3), 起하(3), \*怒하(3), \*論하(3), 斷하(3), \*當하(3), \*待하(3), 導하(3), 渡하(3), \*滅하(3), \*變하(3), 否하(3), 死하(3), 舍하(3), 殺하(3), 習하(3), 施하(3), 試하(3), 仰하(3), 言하(3), 往하(3), \*依하(3), 藏하(3), 積하(3), \*定하(3), 遭하(3), 推하(3), \*取하(3), \*擇하(3), 退하(3), 投하(3), 下하(3), \*向하(3), 覺하(2), 去하(2), 乞하(2), \*激하(2), 結하(2), \*兼하(2), 傾하(2), 經하(2), 計하(2), \*告하(2), 共하(2), \*關하(2), \*救하(2), \*屈하(2), \*勸하(2), 欺하(2), 記하(2), 納하(2), 蹈하(2), 登하(2), 樂하(2), 練하(2), \*論하(2), \*忘하(2), \*免하(2), 舞하(2), 剝하(2), 拔하(2), 放하(2), 防하(2), 分하(2), 譬하(2), \*比하하(2), 散하(2), \*屬하(2), 守하(2), 豎하(2), \*乘하(2), 失하(2), 養하(2), 餘하(2), 演하(2), 營하(2), 畏하(2), 搖하(2), 浴하(2), 用하(2), 憂하(2), 遇하(2), 有하(2), 疑하(2), 藉하(2), 張하(2), 長하(2), \*傳하(2), 存하(2), 奏하(2), 止하(2), 着하(2), 察하(2), 唱하(2), \*請하(2), 祝하(2), 就하(2), 置하(2), 探하(2), 頰하(2), 播하(2), 逼하(2), 學하(2), 害하(2), \*許하(2), 呼하(2), \*興하(2), 耻하(2), 渴하(1), 感하(1), 甘하(1), 講하(1), 揭하(1), 鉗하(1), 擎하(1), 競하(1), 輕하(1), 驚하(1), 係하(1), 稽하(1), 繫하(1), 孤하(1), 攷하(1), 顧하(1), 灌하(1), 膠하(1), 具하(1), 懼하(1), 購하(1), 驅하(1), 捲하(1), 窺하(1), 飢하(1), 亂하(1), 來하(1), 冷하(1), 努하(1), 弄하(1), 擔하(1), 談하(1), 倒하(1), 睹하(1), 逃하(1), 禿하(1), 凍하(1), 來하(1), 慮하(1), 了하(1), \*留하(1), 履하(1), \*臨하(1), 磨하(1), 莫하(1), 彎하(1), \*亡하(1), 買하(1), 盟하(1), 勉하(1), 眠하(1), 謀하(1), 目하(1), 撫하(1), 問하(1), 彌하(1), 泊하(1), 縛하(1), \*反하(1), 拜하(1), 背하(1), 白하(1), \*犯하(1), 併하(1), 病하(1), 卜하(1), 服하(1), 本하(1), 奉하(1), 捧하(1), 剖하(1), 復하(1), 腐하(1), 奮하(1), 紛하(1), 備하(1), 悲하(1), 沸하(1), 寫하(1), 捨하(1), 查하(1), 産하(1), 賞하(1), 塞하(1), 索하(1), 書하(1), 設하(1), 踈하(1), 誦하(1), 送하(1), 灑하(1), \*衰하(1), 修하(1), 授하(1), 收하(1), 需하(1), 述하(1), \*勝하(1), 始하(1), 恃하(1), 猜하(1), 飾하(1), 伸하(1), 審하(1), 按하(1), 壓하(1), 扼하(1), 揚하(1), 攘하(1), 釀하(1), 掩하(1), 勦하(1), \*連하(1), 裂하(1), 咏하(1), 擁하(1), 臥하(1), 容하(1), \*願하(1), 由하(1), \*留하(1), 裕하(1), 吟하(1), 泣하(1), 異하(1), 貽하(1), 斫하(1), 酌하(1), 杖하(1), 爭하(1), 著하(1), 籍하(1), \*占하(1), \*接하(1), 呈하(1), 征하(1), 濟하(1), 祭하(1), 製하(1), \*際하(1), 題하(1), 助하(1), 嘲하(1), 詔하(1), 造하(1), 尊하(1), 種하(1), 終하(1), 縱하(1), 坐하(1), 挫하(1), 誅하(1), 遵하(1), 擲하(1), 遲하(1), 振하(1), 震하(1), 集하(1), 借하(1), 叅하(1), 採하(1), \*責하(1), 擲하(1), \*撤하(1), 聽하(1), 招하(1), 觸하(1), 撮하(1), 趨하(1), 追하(1), 逐하(1), 充하(1), 衝하(1), 聚하(1), \*醉하(1), 治하(1), 墮하(1), 嘆하(1), 歎하(1), 奪하(1), 脫하(1), \*通하(1), 判하(1), \*敗하(1), 吠하(1), \*廢하(1), 弊하(1), 蔽하(1), 閉하(1), 布하(1), 拋하(1), \*表하(1), 恨하(1), 陷하(1), \*合하(1), 解하(1), 餉하(1), 獻하(1), 現하(1), 忽하(1), 換하(1), 還하(1), 湟하(1), 灰하(1), 喧하(1), 揮하(1), 携하(1), 吸하(1), 翕하(1), 惧하(1), 施하(1)

<대한매일신보\_잡보\_국한혼용>

\*對하(69), \*爲하(56), 開하(37), \*居하(32), 在하(26), \*因하(21), \*關하(19), 聞하(19), \*達하(15), \*當하(15), 設하(15), \*據하(13), 言하(13), \*定하(12), 受하(11), \*依하(11), \*稱하(11), 被하(8), \*處하(7), 見하(6), 往하(6), 至하(6), \*向하(6), \*許하(6), 分하(5), 承하(5), \*要하(5), 呈하(5), 下하(5), 得하(4), \*發하(4), 成하(4), 率하(4), 入하(4), 知하(4), \*請하(4), 置하(4), \*行하(4), 來하(3), \*答하(3), 來하(3), 命하(3), 無하(3), 有하(3), 着하(3), 就하(3), \*廢하(3), 經하(2), \*課하(2), \*帶하(2), 賴하(2), 放하(2), 負하(2), \*說하(2), \*屬하(2), 隨하(2), 與하(2), 用하(2), 謂하(2), \*接하(2), 照하(2), 從하(2), 持하(2), \*表하(2), \*合하(2), 可하(1), \*滅하(1), 講하(1), 降하(1), \*擧하(1), 穀하(1), 拱하(1), 驅하(1), 及하(1), 給하(1), 起

하(1), \*論하(1), 弄하(1), \*待하(1), 圖하(1), 龔하(1), 裏하(1), 瞞하(1), \*忘하(1), 問하(1), 報하(1), 仕하(1), 死하(1), 插하(1), 書하(1), 釋하(1), 贖하(1), 始하(1), 試하(1), 食하(1), 失하(1), 甚하(1), 然하(1), 云하(1), 由하(1), 貽하(1), 引하(1), 作하(1), 將하(1), 題하(1), \*除하(1), 贈하(1), 止하(1), 進하(1), 陳하(1), 撰하(1), 參하(1), 唱하(1), 擲하(1), 廳하(1), 推하(1), 出하(1), 則하(1), \*擇하(1), \*罷하(1), 包하(1), \*畢하(1), 解하(1), 懸하(1), 互하(1), 丸하(1), 懷하(1), 訓하(1)

위 목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순한글 텍스트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1음절 한자어 동사들이 대부분이지만 국한혼용의 텍스트에서는 1음절 한자어 동사들은 현대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 보기2에서 예로 보인 것처럼 순한글 잡보는 국한혼용의 잡보에서 한자만 한글로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후자에 출현하는 많은 1음절 한자어 동사는 한자음만으로 문장을 이루기에는 그 당시 편집자들의 직관에 맞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1음절 한자어 동사는 서술어-목적어 구성의 한문구가 한국어의 통사규칙에 맞게 목적어-서술어의 구성으로 재배치되면서 한문구에서 동사만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런 1음절 한자어 동사는 다시 고유어 동사나 2음절 한자어 동사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한혼용의 텍스트에서는 순한글 텍스트에서보다 그 종류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 (1) 他人이 口를 開<sup>ㅎ</sup>면 幼者도 口를 開<sup>ㅎ</sup>야. <19090402\_논설>
- (2) 座中에 法大 趙重應 시와 其他 諸시가 其 言을 切當히 知<sup>ㅎ</sup>고 <19080402\_잡보>
- (3) 아름다운 日晡를 淸<sup>ㅎ</sup>여 닐으<sup>ㄷ</sup> 중앙절이라 ㅎ고 <19080805\_논설>
- (4) 하늘을 가<sup>ㄷ</sup>치며 冥<sup>ㅎ</sup>세를 發<sup>ㅎ</sup>야 닐으<sup>ㄷ</sup> <19080516\_논설>

위 예문에서 1음절 동사들은 “開口”와 “知其言”, “定名”, “發誓” 같은 한문에서 한자어 동사가 분리되어 한국어의 통사규칙에 맞게 재배치되는데 순한글 텍스트에서는 국한혼용 텍스트에서와 달리 “名”이 “일흠”으로 “誓”가 “冥세”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순한글 텍스트에서 중국어 문법에서의 V-O구조를 가지는 한자어 동사가 논설에서는 16번(1.1%) 출현만 잡보에서는 166번(5.4%)을 출현하여 논설과 잡보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빈도에도 영향을 주는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국한혼용의 문체라도 논설과 잡보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데 1음절 한자어 동사도 현대한국어에서도 쓰이는 것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국한혼용의 논설에서는 “作하(29), 得하(23), 知하(23), 云하(20), 觀하(19), 在하(17), 恥하(16), 出하(15), 擧하(10), 成하(10), 至하(10)” 등 현대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국한혼용의 잡보에서는 “對하(69), 爲하(56), 關하(19), 達하(15), 當하(15)” 등 현대한국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는 편집자의 직관에서 한문구로 그대로 돌지언정 1음절 한자어 동사를 분리해내는 것은 편집자의 한국어 직관에 맞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1음절 한

자어 동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한문구에서 한자어 동사만 분리되어 나온 경우도 있지만 국한혼용이라는 문체적 특성으로 고유어 동사를 써야할 자리에 한자어 동사를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1음절 한자어 동사 “作하-”의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5) 羅馬가 英地를 統轄<sub>호</sub> 後로 政教가 漸開<sub>호</sub>더니 北狄이 亂을 作<sub>호</sub>야 禍가 全歐에 被<sub>호</sub>므로... <19100723\_논설>
- (6) 然則 不知不覺間에 全國 二千萬이 彼 日本 三大 忠奴輩의 所願과 긋치 日本 牛馬를 作<sub>호</sub>기도 易<sub>호</sub>지라. <19080402\_논설>
- (7) 人民을 奴隸로 待<sub>호</sub>고 國家로 地獄을 作<sub>호</sub>던 國이러니. <19090605\_논설>
- (8) 此 廣明一塾의 發起가 엇지 儒學界 全體의 曙光을 作<sub>호</sub>였다 <sub>호</sub>리오만은. <19100208\_논설>

위 예문 (5), (6)는 “作亂” 혹은 “作牛作馬”와 같은 중국어 단어에서 동사가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7), (8)은 중국어에서 결합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예문 (7), (8)에서 “作하-”는 “만들다” 대신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문장은 한국어식 문장에서 한자어 동사를 교체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례는 국한혼용의 논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 (9) 嗚呼라 同胞여 同胞가 履霜堅氷至의 考慮를 抱<sub>호</sub>고 見機防水然의 方策을 勵<sub>호</sub> 今日에 在<sub>호</sub>야... <19100513\_논설>
- (10) 功이 無<sub>호</sub>던 恥<sub>호</sub>며 自由를 失<sub>호</sub>던 恥<sub>호</sub>며...<19091001\_논설>
- (11) 一步를 進<sub>호</sub>랴 <sub>호</sub>야도 血이 아니면 進<sub>호</sub>치 못<sub>호</sub>며... <19080516\_논설>
- (12) 嗚乎 同胞아 生<sub>호</sub>였는가 死<sub>호</sub>였는가. <19091208\_논설>

위 예문 (12)은 한문 문장에 어미만 붙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한문을 되살려 “嗚乎 同胞 生否死否”라고 할 때 아래의 예문 (13)와 같은 문장도 쓰이고 있음으로 예문 (11), (12)은 보다 한국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 (13) 嗚乎 同胞여 知<sub>호</sub>는가 否<sub>호</sub>는가. <19091208\_논설>

한자어 동사의 피동표현은 주로 중국어 문법에서 개사로 분류되는 “被-”가 접두사로 한자어 동사 붙어서 과생되는데 “被任하-, 被促하-, 被促되-, 被囚하-, 被害하-, 被傷하-, 被死하-” 같은 동사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국한혼용 텍스트에서는 이 “被-”도 분리되어 1음절 한자어 동사로 쓰인 예가 보인다.

- (14) 北狄이 亂을 作<sub>호</sub>야 禍가 全歐에 被<sub>호</sub>므로 戰塗가 百年에 及<sub>호</sub>였스니... <19100723\_논설>

- (15) 韓國人은 其 所有地 及 住民을 決코 寸毫라도 會社로 因호야 侵害를 被호 危險이 無호으로써... <19081017\_논설>
- (16) 一進會長 李容九는 一般人民에게 不意의 禍를 被호가 恐懼호야... <19091208\_잡보>
- (17) 無賴輩 姜完■ 廉泰永의 誘引호을 被하야... <19080910\_잡보>
- (18) 他國의 攘奪을 被호야 他國을 富게 호 썬이로다. <19081205\_논설>
- (19) 外人에게 富源을 被奪호은 亦 足怪호마 | 無호지라. <19081205\_논설>

위 예문 (19)에서의 “被奪하-”하다가 (18)에서의 “攘奪을 被호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유어 동사 “입-”의 위치에 “被하-”가 대치되어 쓰이고 있다. 이런 현상들도 역시 국한혼용의 문체적 특성상 한국어식 문장에 한자어 동사를 교체하여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1음절 한자어 동사는 한문구에서 동사가 분리되어 쓰였을 뿐만 아니라 국한혼용 문체의 경우 문체의 특성상 한국어식 문장에서 한자어 단어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의 한국어 정착기에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순한글판과 국한혼용판의 논설과 잡보를 분석하여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사용양상은 순한글과 국한혼용의 문체의 차이를 보이는 준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1음절 한자어 동사들이 문장에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한혼용의 텍스트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 순한글이든 국한혼용이든 논설에서 잡보에서보다 1음절 한자어 동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어 문법에서 V-O구조를 가지는 한문구에서 동사가 분리되어 한국어의 통사규칙에 맞게 재배치되는 과정에 1음절 한자어 동사가 많이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자 개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한국어식 문장에 1음절 한자어 동사를 교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결과로 같은 국한혼용의 문체이지만 자기주장을 피력하는 글인 논설에서 1음절 한자어 동사의 사용빈도가 기타 신문의 기사를 번역했을 것으로 보이는 잡보에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앞으로 순한글과 국한혼용 신문의 병렬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런 1음절 동사들이 국한혼용 문체에서 순한글로 바뀌는 양상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후행연구에 넘기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자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웹사전  
中國社會科學研究院言語研究所辭典編纂室 編,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辭海編纂委員會, 『辭海』(1999年版), 上海辭書出版社

### <논문>

- 권영민(1996), “개화계몽시대서사양식의 장르분화”, 『한국문화』 17호,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김규철(1990), “한자어”, 『국어연구어디까지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김동연(1996), “개화기 번역 문체 연구”, 『한국어학』 제4권, 한국어학회  
김미형(1998),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 연구”, 『어문학연구』 7, 상명대학교언문학연구소  
김영민(2007), “한국 근대계몽기 ‘소설’의 정체성 연구”, 『근대계몽기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김종택(1972), “복합 한자어의 어소 배합 구조”, 『어문학』 제27호, 한국어문학회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김흥수(1988), “언어학적 문체론의 위상과 과제”,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김흥수(1993), “국어 문체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1, 한국언어문학회  
김흥수(2004),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 39권, 국어문학회  
나병철(1998), “구어체 소설과 또 다른 근대의 기원”, 『비평문학』 12호, 한국비평문학회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호, 국어학회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4  
민현식(2002), “개화기 국어 변화의 계량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39  
박성란(2004), “근대계몽기교과용도서와 언문일치”, 『한국학연구』 제13집  
박일용(1996), “개화기 서사문학의 일 연구”, 『관악어문연구제』 5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편  
서상규(1998), 『현대한국어의 어휘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손정수(2003),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 10집, 깊은샘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호, 국어연구소

- 안대회(2004), “조선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제24집
- 이기문(1988), 『한국어문의 체문제』, 일지사
- 임형택(2004),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창작과비평』 106호
- 주승택(2004), “국한문교체기의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 『대동한문학』 제20집
- 허재영(2006),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생활”, 『사회언어학』 제14권 1호
- 한영균(2008), “현대 한국어 혼용 문체의 정착과 어휘의 변화”, 『국어학』 51, 국어학회
-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제117권, 국어국문학회
- 홍종선(2000), “현대 국어 문체의 발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 박이정